

나 이는 단지 인류 물질공간의 물질성분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기타 공간과 다르고 물질도 다르다. 어떤 사람이 물체의 형태는 빛으로 조성되었다고 하고, 회화 중의 명암의 표현과 색깔의 출현을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물체는 빛이 없는 상황에서도 모두 그 형태이며, 빛은 단지 사람에게 시각상의 명암 감수를 조성할 뿐이고, 색깔은 빛의 강도 변화에 따라 착각이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색깔과 물체형상을 바꿀 수 없다. 수련의 각도에서 말하면, 빛은 또 사람의 눈을 장애하여 사람에게 가상을 조성한다. 다른 허다한 공간에는 태양이 없고, 또한 많은 공간의 일체 물체들은 전부 자신의 부드러운 빛 속에 있다. 한 가지 물체가 태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한 개 공간에 태양이 없다면, 물체의 형태는 역시 안정적이다. 어떤 공간의 일체 물체들은 모두 미미하게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을 내보내고 있으며, 동등 층차의 생명 자신들도 보아낼 수 있다. 이런 공간 역시 태양 같은 직사광원(直射光源)이 없지만 보이는 물체형상은 여전히 그러한 형상이다.

다른 공간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빛을 내보내는 것이며, 색깔과 물체의 형상이 변하지 않는다. (물론 신과 신의 일체는 모두 변화한다. 물체의 존재방식도 사람이 알고 있는 소위 안정된 상태가 아니다.) 일반적으로 칼라 네온사인

곡조 중 많은 것이 모두 옛 중국의 것이다.

방금 말한 것은 대부분 음악에 관한 문제인데, 무대예술 기타 방면의 창작도 따라가야 한다. 일반 갈라 공연 프로그램 중 다수가 단체 무용인데, 적으면 매우 단일하고 단조롭다. 한 차례 갈라 공연 중에 만약 무용이 없다면 그것은 공연이 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이 방면에서 더 개발하고 개발하여 한 갈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예전에 나는 중국 서부의 가무단(歌舞團)이 고대 문화를 표현하는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역사 문화 프로그램이 매우 많았다. 모두 참고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 모방하는 것은 아니며 당신들 자신의 한 갈래 길을 걸어라.

제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TV방송국과 더욱 잘 협력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모두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부: 여러분이 함께 모이기가 쉽지 않고 협조(協調)하려고 해도 역시 어렵다. 그러나 컴퓨터, 팩스나 전화를 이용할 수 있으며 아주 많은 일들을 다 소통할 수 있다. 가급적 이런 조건을 이용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멀리 떨어져 있고 전 세계적인 범위라서 다 함께 모이는 것도 매우 쉽지 않다. 다행히 오늘 회의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었으니 이렇게 한 갈래 길을 찾아 걸어 보도록 하라. 사실 모두 잠재력이 있다.

제자: 저희 악단은 오스트리아 전역에 가서 공연하려고 합니다. 만약 저희의 곡목(曲目)이 부족하다면 그럼 저희 대법제자가 속인의 클래식 곡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모차르트나 혹은 쇼팽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것은 문제가 없다. 나는 이미 클래식 악곡(樂曲)은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문화대혁명’ 이전의 것은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반드시 중공사당 문화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중공사당이 오기 전의 것은 기본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마두(魔頭) 이 시기의 것은 모두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속에는 모두 사악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그 한 시기 인류는 마에 의해 통제 당한 것이다.

제자: 마두(魔頭)가 있던 그 십몇 년 동안의 음악 창작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시기의 TV나 영화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부: 나는 이 시기의 것은 모두 좋지 않다고 느끼는데 배후에는 모두 각종 썩어빠진 귀신들이 사람을 통제하는 요소들이 있다.

예서체를 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각종 글자체를 여러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글자체든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초서는 내가 느끼기에 사람의 부(負)적인 일면을 너무 방임하여 사람의 표면요소가 너무 많으며, 사람의 진정한 정념으로 선행(善行)할 때 써낼 수 없는바, 주로 사람의 관념이 방임될 때 써낼 수 있고, 심하면 그때의 심태는 어느 정도 발광한 것이며, 바른 일면이 부족하다.

제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바로 삼원색(三原色)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삼원색은 다른 공간에서 대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보색(補色)에 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삼원색을 이해해야 합니까? 사람 이 곳에서 우리는 빛 때문에 색이 나타나고 빛이 없으면 색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공간은 전부 빛인데, 그 색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부: 사람은 회화의 안료 중에서 삼원색을 섞어서 다른 색으로 조합할 수 있으며, 인류의 스펙트럼 중의 삼원색 역시 부동한 색의 스펙트럼으로 굴절시켜 합칠 수 있다. 그러

제자: 사부님, 저는 중국의 서법(書法)이 예술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서(草體)는 올바른 것입니까?

사부: 지금은 서예라고 부르지만, 과거에는 글쓰기이다. 근대 이후에 와서 사람 또한 붓으로 글을 쓸 필요가 없어 그것을 예술로 여겼다. 사실 그것에도 확실히 예술의 내포가 있다. 어차피 그것을 예술로 여긴다면 미술전시에서 그것을 미술작품으로 생각하라.

초서를 언급하니, 엄격히 말해서 사람의 부(負)적인 일면을 방종(放縱)한 심리표현이다. 과거에 신이 사람을 도와 글자를 만들 때 무슨 초서가 없었다. 사실 나는 붓글씨를 연습한 적이 없고 그다지 잘 쓰지 못하지만, 늘 사람들이 나를 불러 무엇을 좀 써달라고 하면 나는 예서로 쓴다. 내가 예서를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예서, 이런 글은 누가 그것을 날려서 쓰려고 해도 날릴 수가 없으며, 날린다면 예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관념 혹은 사상 업력을 방임하는 중에서 그것을 날려서 쓰기 아주 어렵다. 이 한 점에서 나는 예서를 쓰기 좋아한다.

제자: 서예의 글자를 말할 때, 사부님께서 예서글씨를 쓰기 때문에 일부 대법제자들이 글자체를 고를 때 일반적으로

제자: 노래는 저희에게 현재 이미 있는데요, 어떤 노래를 기조(基調)로 하여 교향악이나 혹은 소(小) 합주곡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요?

사부: 구체적인 문제는 당신들이 상의해 가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자: 최근 저희 TV방송국의 서양인 수련생이 MTV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대의 기타, 전자기타 그런 종류의 현대 음악 형식입니다.

사부: 괜찮다. TV방송국은 속인 사회에 입각한 것으로, 마주한 것은 보통 대중이므로 전자 악기라도 괜찮다. 대법제자는 수련의 길을 잘 걷고 바르게 걸어야 하지만 속인의 직장 일 중에서 되도록 좀 잘 하도록 하라. TV프로그램은 속인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지금은 법정인간(法正人間)시기가 아니라 대법제자가 수련하는 단계로 진상을 알리고 박해를 폭로하고 있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자. 당신들 누가 음악편성을 할 수 있는가? 손을 들어 보라. 모두들 다 보도록 하라. 특히 TV방송국을 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의 어느 영상에 음악이 필요할 때 당신은 그들을 찾도록 하라. 편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작곡

도 할 수 있다.

당신이 보라. 그런대로 적지 않다. 나는 아래에 또 수준이 높은 허다한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데 작용을 발휘해 보도록 하라. 물론 단번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역시 트집 잡지 말라. 선의(善意)적으로 서로 교류하고 점차적으로 자신의 이 길을 성숙하게 걸을 수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꼭 잘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생산량도 많아져야 한다. (웃으심). 예를 들어 나는 하나를 했으니 됐고 만족하며 나는 해냈다고 말한다면 안 된다. 대법제자가 한 사람을 구원하면 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안 된다. 매우 많이 구원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 저는 법에서 한 가지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석가모니부처는 몇 억겁 년 전에 수련하여 도를 얻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구는 단지 두 차례 뿐이며 매 한 차례는 다 일억 년인데, 그럼 의미하는 것은요…….

사부: 석가모니부처는 이전에 지구에서 수련한 것이 아니다. (웃어 사람 웃음) 석가모니부처는 사람을 제도하기 위해 세상에 온 것으로 그는 천상(天上)에서는 바로 신(神)으로 일찍이 도를 얻었다. 이번에는 여래 과위(果位)를 증

가 한 폭의 비교적 거대한 작품을 표현해 내어 이 작품 속에 모두 있게 해도 괜찮은지요?

사부: 당신이 한 폭의 대작을 창조하려 하고 작품 속에 동방·서방인물 형상의 신이 동시에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일부 도(道)를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또 일부 서방인 형상의 신을 그려서 동일한 작품 속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만약 동일한 작품 속에 한쪽은 유화수법이고 한쪽은 중국화수법이라면 내가 봤을 때 안 된다.

제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품 중에서 주로 광명(光明)한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작품은 내포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속에는 또 부정적인 인물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장면을 비교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처리에서 당연히 어두운 구석에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괜찮겠습니까?

사부: 괜찮다. 사실 당신이 이 그림을 보면 악경(惡警)이 대법제자를 때리고 있다. 색조의 표현에서 악경과 대법제자는 구별이 있으면서 정체적으로 또한 아주 잘 어울리며(協調),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당신들 기법상의 문제인바, 어떻게 그것을 잘 배치하느냐이다.

하는가 아니면 소위 그 현대의식을 추구하는가, 정통표현수법을 사용하는가, 아니면 현대파의 관념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인바, 문제는 의(意)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제자: 사부님, 한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방금 전에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품들은 모두 서방 신의 형상에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대법제자로서 중국과 서방(西方)이 융합(溶合)된 이와 같은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 동방의 특징이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사부: 동방과 서방인 형상의 신을 한 작품 속에 그리는 것은 문제가 없다. 정법 중에서 아주 많은 부동한 신들이 모두 바른 면(正面)의 작용을 일으켰다. 수많은 중국화들이 매우 좋으며 모두 인정할 만하다. 수법 상에서, 기교 상에서 더 제고한다면 이것은 모두 문제가 없다. 중국화와 서방 유화를 한 그림에 체현하기는 아주 어려울 것 같다. 동·서방의 수법을 한곳에 융합(溶合)시키는 이 선례를 연 사람은 아직 없다. 그야말로 이도 저도 아니게 만들지 말라.

제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더 높은 층차에서 말할 때, 동·서방의 아주 많은 신들이 부처 이하의 층차인데, 우리

오하고 인류에게 부처의 문화를 남겨주기 위해 온 것이다.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매우 많은 이야기들이 모두 천상의 일이지 지상의 일이 아니다. 내가 말한 적이 있지 않은가. 사람이 부처가 거기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매우 신성하지만 부처가 부처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들은 신(神)의 사회 군체(群體)이다.

시간 관계상 회의를 여기까지 하겠다. 당신들은 대법제자이므로 나는 당신들이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 나는 당신들의 좋은 소식을 기다리겠다. (박수)

주: 녹음 관계로 여기까지만 정리되었다.

는 과정, 그리고 행진과 같은 등등을 창작해도 괜찮습니까?

사부: 이것을 모두 표현할 수 있지만, 관건은 당신들이 구상과 창작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 중국의 사의(寫意)인데요, 중국의 일부 저명한 화가 대다수가 사의를 그리는 이들과 산수(山水)를 그리는 이들입니다. 우리도 그릴 수 있습니까?

사부: 사의(寫意)는 문제가 없다. 중국화, 산수화 역시 괜찮다. 그것은 대법제자가 그린 것이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은 대법제자이므로 지금 여러분 모두가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중생에게 미래를 창조해 주고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특히 이 시기에 이것은 대법제자의 책임이다. 사악을 폭로하고 대법을 펼쳐 보여주고 신을 펼쳐 보여준 이러한 작품이 좀 더 많으면 좋으며 이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대법제자의 다른 작품도 전시할 수 있다.

제자: 사의(寫意)는 변이(變異)에 속합니까?

사부: 내가 말한 사의(寫意)는 작품 속에서 내포를 표현함을 말한다. 사람이 정통정념(正統正念)의 도덕기초에 서서 정감을 표현하면 문제가 없다. 관건은 정념으로 창작

의 수련생은, 이것은 무엇을 그렸습니까? 하고 나에게 묻는데, 나는 그들에게 그린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었다. 물론 여러분들은 모두 예술을 하는 사람들로써 또한 매우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으로 탐구해 보는 것도 무방하다. 그림 몇 폭을 골라서 나도 그림 중에서 표현한 것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지 말해 보겠다. (박수)

여러분 앉으시오. 방금 내가 이러한 그림들이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여러분들도 모두 내가 말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대법제자들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도록 하려고 하였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자기의 생각들을 말해 보도록 하라. 어떤가?

제자: (번역문) 우리는 박해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대법제자가 형벌을 받는 형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사부: 표현할 수 있다. 대법제자가 박해당하는 정경을 표현할 수 있으며, 대법제자가 법 공부하고, 연공하는 것, 대법이 널리 알려진 후의 신(神)과 천상의 풍경, 이런 것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제자: 우리가 대법제자의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홍법하

美術創作研究會講法

미술창작연구회설법

李 洪 志

2003년 7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데, 기본적으로 신체구조의 비례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 중국의 수많은 조상(造像)은 어떤 한 파(派)의 작품의 특징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성숙하지 못하여 그려진 것이다.

방금 나는 대체적으로 매우 간단하게 인류예술의 발전과정과 그것의 내원(來源)의 윤곽을 설명하였다. 과거의 예술은 통상적으로 신에 대한 표현이며, 신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해준 것 역시 인류에게 ‘신이 인류를 비호(庇護)하고 있으며, 사람이 잘하면 곧 선과(善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술가의 작품에는 모두 어떤 것을 표현하려는 주체와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구도(構圖) 중에서 어떤 화면을 구상(構思)하며, 당신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두 그 자신이 표현하려는 의의가 그 속에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것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서방의 정통예술을 볼 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르네상스시기의 미술작품으로, 오로지 그것의 화법(畫法), 수법만 보았다. 이것 역시 기본기(基本功)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중에서 표현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매우 적다. 그러므로 내가 회화와 조소 작품을 볼 때 주위

람들이 부처를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부처를 믿은 것은 아니었으며 다른 신을 믿는 사람도 있었다. 인도에 전해 들어온 후 부처의 형상과 조상(造像) 수법도 인도로 전해 들어왔다. 그러므로 중국의 불상을 만드는 수법의 초기는 기본적으로 고대 그리스 식이었다. 여러분이 보는 아주 많은 초기(早期) 부처의 소상은 안와(眼窩)가 깊고, 미륵골, 안면부의 윤곽이 서양인의 윤곽과 같다. 코가 곧을 뿐만 아니라 매우 네모났다. 이는 바로 고대 그리스가 비교적 초기의 부처문화를 인도로 전해 주었으며, 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상자(造像者)의 작품에는 모두 그 본인의 요소가 있기에 중국으로 전해 들어온 후의 조상(造像) 중, 부처의 형상은 또 중국인을 좀 닮았다. 중국으로 전해 들어온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고대 그리스 문화가 중국으로 전해 들어온 초기 때의 요소를 점차 잃어버렸고 점차적으로 더욱더 중국 향토의 느낌으로 나아갔다. 이것은 사람의 표면 문화에서 말하는 것이며, 그 외의 원인이 또 있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 들어온 후, 확실히 수많은 사람의 副元神(푸웬션)이 부처·보살로 수련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그때는 체계적인 학술체계가 없었고 조상(雕像) 또한 모두 석공(石匠)과 수도자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서양의 조소(雕塑)와 비교하면 전문성이 없었는

미술창작연구회설법

李洪志

(2003년 7월 2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여기에 자리한 수련생들은 모두 미술창작을 하는 사람들로써 모두 전문적인 기능이 있다. 나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오로지 법리상에서 말한다. 미술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인류의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인류사회에서 사람의 관념에 대한 일종의 유도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류의 심미(審美)관념에 영향을 준다. 무엇이 미(美)이며, 무엇이 인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정확한 미의 감수인가 하는 이것은 인류의 도덕기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만약 사람이 아름답지 않은 물건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면 인류의 도덕은 이미 끝난 것이다.

인류의 도덕은 같지 않은 시기에 일부 변화가 발생하였다. 인류의 도덕은 인류의 예술에 영향을 주고, 예술은 역으로 또 인류에게 영향을 끼친다.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오늘날의 예술 중 수많은 것들이 현대의식을 받아들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나 현대인류는 이미 인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도덕의 범위와 표준을 훨씬 벗어났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소위 예술은 이미 사람의 문화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지적이고 청성(淸醒)한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사람이 정념과 선념(善念)으로 예술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류의 진정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예술은 타락하고 있다. 현재의 예술에 대해 말하자면, 엄격하게 말해서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다. 나는 항상 일부 소위 현대예술작품을 본다. 매우 명망이 있는 작품들이라지만, 사실 모두 마성(魔性)의 산물이다. 비단 마성의 것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 느낌(感覺)을 찾을 때는 이미 귀신의 행위를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해나간다면 심리는 필연 음침(陰暗)하고 괴이(怪異)하게 된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다시피, 이러한 것을 할 때의 심리상태는 모두 인성(人性)의 악한 일면을 방종(放縱)하며, 심지어 일부러 사악한 심리반응을 추구한다. 그러므로 이런 소위 현대예술의 것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그다지 좋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 대하여 해(害)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감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상해를 입히며, 사람의 도덕관념에 대해서도 엄중한 파괴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어느 업종이든 작자 본인이 바른 기초를 다졌다면, 당신이 무슨 작품을 창작하든 모두 바른 요소가 내비치고, 모두 아름다우며, 모두 선한 것으로, 사람에게 이익을 보게 한다. 꼭 이렇다. 대체적으로 말해서 내가 본 인류예술은 바로 이렇다.

방금 나는 동서양예술 중에 조소(雕塑)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했다. 조소를 말하면서, 동양의 소상(塑像), 그의 출처와 역사과정에 대해서도 말해보려 하는데, 단지 이번 문명 중의 정황만을 말하겠다.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 들어오기 전에 수많은 조소 작품의 풍격은 모두 전 한 시기(다시 말해서 대홍수 이전)의 문화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불교가 중국(中土)에 전해 들어온 후와는 완전히 같지 않은 예술풍격을 갖고 있다. 엄격하게 말해서, 이번 인류문명을 대표하는 동양의 조소 작품은 마땅히 불교의 부처·보살과 신을 표현하는 것을 대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早期) 작품의 조상(造像)수법은 인도에서 전해온 것이며, 아울러 인도의 조상수법은 또 이번 한 시기 인도의 불교 이전의, 부처를 믿던 시기로부터 남겨져 내려온 것이다. 아울러 전번 한 시기의 인도인들이 믿던 부처는 또 유럽의 고대 그리스인들 중, 부처를 믿는 사람들이 인도로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더욱 초기의 유럽인들 중에서 매우 많은 사

모두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 이익을 얻음과 동시에 작자는 신을 창작하는 예술작품 중에서도 역시 선념(善念)을 생성하는데, 이로부터 신은 그를 도와 정념을 강화시킬 수 있고, 그 작자 신체상의 업력과 사상업력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 이러한 작품을 사람이 보면 이득이 있고 흥금이 넓어지며, 사상에 선념(善念)이 깃들어 인격이 더욱 고상해진다. 신은 사람에게 정념이 있는 것을 보면, 사람을 도와 위난(危難)을 해소해 준다. 이는 인류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 그러한 정통적인 작품, 신을 그린 그러한 천장·벽화, 또 신을 조소(彫塑)한 그러한 소상(塑像)을 나는 보기 좋아한다. 나는 보고 나서 늘 인류에겐 아직도 되돌아올 희망이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작품은 신의 위대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상(神像) 그쪽의 신 역시 정말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대비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인류의 예술이 마땅히 신을 표현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가?

물론, 현대사회의 예술은 그림과 조소 작품뿐만이 아니라, 또 공예미술·광고·복장·무대예술·TV·영화·제품조형 등이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예술과 관련이 있는 업종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두 미술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러나 대법제자는 수련과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속인의 이 사회 환경을 이탈할 수 없으며, 여전히 현대인의 관념 이런 조류(潮流) 속에 있으며, 여전히 이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아주 많은 대법제자들이 대법을 배우기 전에 모두 현대예술을 배우고 취급하였다. 물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현대예술을 하든, 인류에게 마땅히 진정으로 있어야 할 정통예술을 하든, 과거 당신들이 배운 기본기는 역시 같다. 그러므로 대법제자는 반드시 무엇이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예술인가를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면 곧 사람의 순정(純正)한 예술표준에 따라 할 수 있으며, 좋은 것을 창작해 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회의를 여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대법제자가 역사에서 오늘날 한 일은 무엇이든 지극히 중요하다. 내가 어제든 말했듯이, 대법제자가 무엇을 하면 머지않은 인류사회가 모두 따라 배울 것이다. 현재, 정법기간에 세상의 일체가 모두 대법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삼계는 정법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말하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분야의 예술기능이 있는 대법제자는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어 당신들이 해낸 일들이 만약 바르지 않거나 혹은 그다지

바르지 않다면, 당신들은 곧 바르지 않은 그 요소를 강화하여 인류사회에 더욱 영향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수련이라, 당신들은 원래 자신을 수정(修正)하고 좋지 않은 일체를 수련하여 제거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어디에서라도 마땅히 모두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예술이라는 이 영역에서도 여전히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당신의 작품 중에서도 역시 아름다움(美)을 표현해야 하며, 바름(正)을 표현해야 하고, 순수(純)함을 표현해야 하며, 선(善)을 표현해야 하고 광명(光明)을 표현해내야 한다.

인류사회의 도덕이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인류의 관념도 이러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변화·발전되었다면, 사람이 스스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사람, 어떤 이론, 어떤 방법도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없으나, 오로지 대법만이 할 수 있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 중생을 구원하러 왔으며, 동시에 우리가 중생을 구원하는 의의 중에는 인류의 도덕을 구원함과 구원된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존재하고, 어떻게 생활하며, 어떠한 상태에서 생활하는가도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대법제자는 비단 중생을 구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의 중생에게 사람이 생존하는 진정한 한 갈래의 길을 개척해 주고 있다. 이것은 모두 대법제

은 마땅히 신이어야 한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람은 업력이 있다. 당신들은 대법제자로서 모두 알고 있는바, 사람들이 그린 일체는 모두 작자 본인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예술가의 작품 중, 그 개인의 일체 정황과 모델의 일체 정황이 모두 그 그림에 실리게 된다. 보통 한 속인이 한 필을 그리면, 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에게 어떤 병이 있고, 얼마나 큰 업력이 있으며, 사상 정황·가정정황 등을 바로 알 수 있다. 아울러 모델이 된 사람도 역시 그림 속에서 그 본인의 일체 사상과 그 신체가 지닌 일체 요소, 업력의 대소(大小)를 포함하여 충분히 체현되어 나온다. 누가 그려진 이 인물화를 집에 걸면, 그러면 그림 속의 인물의 업력도 그림 속에서 발산(散發)되어 나온다. 이러한 물건을 집에 걸어놓으면 그 사람에게 이득이 있겠는가? 아니면 피해를 보겠는가? 업력이 발산되어 그것과 그 사람은 연대를 갖게 되는데, 끊임없이 그림을 건 사람의 집 속으로 발산된다. 사람들은 물체의 연대관계를 보지 못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모두 불편한 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이 신을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신은 광명하고 위대하며, 자선(慈善)의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어 사람에게는 유익하다. 아울러 그림 제작자와 조각자

것이다. 신이 사람에게 이런 종류의 문화를 전해준 다른 한 가지 목적 역시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위대함을 보게 하려는 것이며, 선악에는 보응이 있어 악을 행한 자는 악한 보응이 있고 좋은 사람은 복으로 보답을 받으며, 수련자는 천당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서방예술의 출현, 시작은 모두 교회에서부터였다. 동양의 조기(早期) 조상(造像)은 거의 모두가 신의 소상(塑像)이었으며, 중국에서 유전하여 내려온 가장 오랜, 가장 초기 회화(繪畫)에서 그린 것 역시 모두 신이다. 사람이 신을 그리는데 또한 끝이 있는가? 끝이 없다. 광활한 우주, 방대한 천우(天宇)의 일체를, 사람이 정말로 신을 믿을 때, 정말로 신을 표현할 때 신은 사람에게 펼쳐 보여 준다. 그것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신성하며 또한 인류의 동경과 가장 아름다운 귀착(歸宿)으로서, 작품의 표현도 끝이 없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이 신을 그리려면 그것은 사람을 모방해야 한다. 이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이 자신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본기(基本功)의 연습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그리는 것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필경 세간(世間)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산수를 그리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류 미술작품의 창작중심

자가 법을 실증하는 가운데 하는 것이다.

나는 삼계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법정인간시기에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제자가 오늘 하는 어떤 일도 모두 지극히 중요하며, 또한 모두가 미래의 사람과 미래의 문화에 기초를 개창(開創)해 주는 것이다. 근대 인류의 일체는 모두 난잡해졌고,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고만한 정통적인 것조차도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으며, 순정(純正)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행히 고인(古人)들이 일부 문화유산을 그나마 남겨두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다. 특히 미술방면에서 일부 기본기(基本功)의 학습을 남겨두어 인류는 그래도 인도(人道)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운데 미술을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장악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운용하여 진정한 사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어떻게 좋은 것들을 창작해 낼 수 있겠는가? 내 생각엔, 기본기(基本功)의 기초가 있고 대법제자가 수련 중에서 인식하게 된 진정으로 선하고 바르며 순수한 아름다움을 더하면 바로 좋은 것을 표현해 낼 수 있다.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나는 또한 내가 본 인류의 발전상황과 인류예술의 발전과정을 말하고자 한다.

사실 인류의 동·서방의 예술은 모두 성(成), 주(住), 괴(壞)의 과정이 있다. 동방의 예술과 서방의 예술은 두 갈래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언어로 말한 것이지만, 사실은 두 개의 부동한 우주 대체계(大體系)가 각자(各自)의 가장 낮은 층차의 생명, 즉 사람의 예술생활 방면에서 구체적으로 체현된 것으로서, 다시 말하면 그 우주체계 것들의 가장 낮은 층차 사람 여기의 표현이다. 사실 우주 중에는 수없이 많고 많은 부동한 대궁(大穹)이 있는데, 매우 많으며 모두 독립적이고도 거대한 천체이다. 매개 대궁 중에는 모두 그 독특한 구조가 표현해 낸 각자(各自), 각 방면의 부동(不同)한 풍격(風格)이 있는데, 사람의 언어로 말하면 바로 역시 부동(不同)한 예술특징이 있는 것이다. 매개 거대한 천체는 모두 眞(眞)·善(善)·忍(忍)의 근본법리 중에서 인식해 낸 부동(不同)한, 바른 깨달음의 이치(正悟之理)가 있다. 그래서 부동한 천체 체계는 모두 그의 자체 체계의 독특한 특징이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천지의 구조·환경의 형태·생명의 형식·생명의 장식(裝飾)·건축의 풍격(風格)·동식물의 표현형식 등등에서 표현되었으며, 그것들에게는 모두 자신의 독특하고 바른, 미를 표현하는 방식·우의(友誼)와 은혜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많은 우주체계 중의 조화(造化)가 사람 여기

한 것이 어디가 좋은지를 모른다. 그러나 그가 말한 좋다는 것은 오히려 마성의 것이며, 아울러 예술에 대한 유치함과 가소로움이 포함되어 있다. 당신의 사상이 그를 따라 그의 그 마성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그가 말한 소위 좋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낼 수 없다. 사실 그러한 물건들은 모두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쓰레기들이다.

당연하다. 많은 사람들이 조류(潮流)에 따라 떠들썩한 것으로, 대다수의 민중들은 현대파라고 하는 그 일련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두를 쓰레기라고 당신이 말하면,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사람은 쓰레기 같으면 같을수록 더욱 좋다고 말한다. 여러분들은 모두 들었다. 중국에 그 무슨 소위 예술가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죽은 아이의 고기를 먹는다. 지난 한동안 보도를 들은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마성을 추구해서 여기에 이른 것이다. 이 일체가 더 발전해 내려간다면 무섭지 않은가? 인류의 예술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장차 무엇으로 나아갈지 사실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또 인류의 예술은 마땅히 무엇을 표현해야 하는지를 말하겠다. 인류의 예술은 사람 자체를 표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산수(山水)의 환경을 표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신(神)을 표현하기 위함인가? 귀신을? 알아야 할 것은 인류의 진정한 예술은 우선적으로 신의 전당 속에서 나타난

인류의 도덕에 대하여 바른 면(正面)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인류도덕의 패괴 때문에 정통 인류예술은 오히려 마성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의해 정식 대학전당에서 밀려났다. 정통예술은 생존을 위해 사실파(寫實派)로 변하였는데, 사실(寫實)이란 설(說)은 바로 이렇게 온 것이다.

현재의 인류는 무엇이든 모두 이렇게 반대방향의 방향으로 걷고 있다. 당신들은 발견하였는가? 그러한 발성(發聲)할 줄 모르고, 악리(樂理)를 모르며, 무도(舞蹈)의 기본기(基本功)가 없는 자들이 가수·무용 스타로 되었고, 진정한 예술가들은 오히려 밥그릇을 잃게 되었다. 심지어 머리를 깎을 줄 아는 사람조차도 거리로 밀려나가서 노점을 하게 되었으며, 머리를 깎을 줄 모르는 자들은 오히려 아주 화려한 미용실 안에 있다. 인류의 일체 것들은 모두 반대의 방향을 향해 미끄러지고 있으며, 모두가 이렇게 패괴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소위 그러한 현대파들이 과거에 추구한 것은 바로 그 무슨 개인의 감수였으나, 후에는 자아의 통제 상실로 나아갔고, 현재는 자신의 신체를 귀신에게 맡겨 조종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무슨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한 폭의 소위 현대파의 것을 거기에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아, 이 그림이 얼마나 좋은가 보시오.”라고 한다. 그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가 좋다고 말

에 전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개 체계 저층생명(低層生命)의 표현방식이 있는데, 동·서방예술이 포함된다. 그러나 거대한 궁체(穹體) 중에는 결코 이러한 것뿐만이 아니며, 내가 말하는 것은, 사람 여기에 전해진 것은 오로지 이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다.

인류의 이 두 가지 예술체계를 놓고 말하면, 동·서방 각자의 민족문화 중에는 모두 몇천 년의 계승 과정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술의 풍격(風格)은 오히려 서로 크게 다른바, 기법상(技法上)·표현 방식상·감수상·시각상 모두 같지 않다. 중국예술의 계승과정 중에는 시작에서부터 바로 반신(半神)의 문화를 다졌다. 다시 말해서 절반의 중점은 사람의 표면에 놓은 것이 아니라 신운(神韻)과 내포에 두었다. 그러므로 모든 문화를 포함하여, 그 표현상 모두 이런 특징이 있다. 특히 미술방면에서 표면의 세부 표현을 그다지 중히 여기지 않고, 뜻(意)의 표현을 중히 여겨, 그것의 내포를 표현하였다. 그러나 서방의 예술 또한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것이지만 그것의 중점은 사람의 표면문화에 두어, 기법상의 출중(高超)·정확(準確)·세밀·진짜 같은(逼真) 신공(神工)이 두드러졌다. 사람의 표층공간의 기능을 표현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미술작품 중 물체 표면을 표현함에 매우 세밀하고 정확하였다. 그러므로 서방

과 중국의 예술풍격의 두 갈래 길은 같지 않다. 발전 과정에서, 서방예술은 전 한 시기 문명에서 계승해 내려온 것이다. 사실 서방예술은 앞의 몇 차례 문명 중에서 줄곧 학술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연속되었고, 학교가 있고 이론이 있으며, 정규적 훈련이 있었으므로, 그것은 계속 이런 길을 걸었다. 그러나 동방예술은 연속 중에 줄곧 민간에서 유전되었으며, 문인(文人)과 장인(匠人) 및 도(道)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서 유전되어, 계통적인 이론이 없고 학교가 없었으며, 정규적인 훈련 없이 완전히 개인경험에 의거하여 작품을 표현했는데, 특히 조소(雕塑)작품이 그렇다. 중국인의 문화특징으로 인하여, 표현한 회화(繪畫)와 조소(雕塑)는 기본적으로 역시 중국인의 문화성격이 작용을 발휘하였으며, 자신도 모르게 바로 뜻(意)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표현수법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사람의 가장 표면에 입각해서 보면, 서양예술은 수법상 매우 세밀하고, 명암·구조·투시관계에 대하여 반드시 정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인체의 구조를 표현함에서 매우 정확했다. 그러나 중국 고대의 미술에서는, 계통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표면의 물체구조를 표현하는데 정확성이 부족하였다.

예술의 길은 언제나 그것의 초기에서 고봉(高峰)에 이르

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끝이 없는 광명대도(光明大道)이다.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고 소조를 할 줄 아는 예술가들은 사상의 대부분을 모두 자신의 예술에 쏟아 붓기 때문에, 대개 언사(言辭)에 능하지 않다. 그러나 그릴 줄 모르거나 소조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말솜씨가 좋지만 하는 말은 모두가 억지로서, 사진 찍는 기술의 진(眞)을 논하는 이론으로 정통예술을 뒤엎었으며, 점차적으로 오늘날의 이러한 정도로 나아가게 되었다. 물론 당초에 정통예술을 뒤엎으려고 하면, 미술을 완전히 알지 못하거나 미술을 모르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초기에 배치한 그 몇몇 현대파의 대표 인물들도 그들로 하여금 아동 시절에 먼저 기본기를 장악하게 하였는바, 이래야만 세인들을 더욱 미혹시키게 할 수 있었다.

당초 학원파(學院派)와 인상파·추상파 사이의 정(正)과 사(邪)의 논쟁(論戰) 중에서, 인류도덕과 관념의 하락이 인류의 진정하고도 신성한 예술을 부정했기 때문에, 정통예술가들은 생존을 위해 겨우 조그마한 작디작은 공간을 짜내었는데, 현재 사람들이 정통예술이라 부르는 “사실파(寫實派)”다. 과거에는 이런 설이 없었다. 신이 사람에게 전해준 예술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류가 숭상하는 선(善)과 미(美)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를 다졌기에, 인류의 예술이 오늘날 이러한 마성(魔性)의 상태로 걸어오게 되었다.

당초에 서방 정통 예술이 소위 인상파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바로 사진기술이 나타났다. 논쟁(論戰) 속에서 소위 그러한 인상파들의 가장 전형적인 말은 “당신이 아무리 정확하게 그려도 사진 찍는 것처럼 정확하겠는가?”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물체를 비슷하게 · 진실하게 · 정통적 · 표준적으로 그린다는 것을 부정하였다. 사실 정통적 예술은 사람으로서 높은 질의 완벽한 추구이며 끝이 없는 것이다. 정통 예술 공간은 매우 광의적(廣義的)이다. 왜냐하면 완벽하고 좋은 한 폭의 작품은 비단 마치 진짜와 같을 뿐만 아니라, 사실 또한 작자 본인의 인생체험과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자가 인생 중에서 만났던 것, 인생 중에서 장악한 여러 면의 각종 학과지식과 기능은 모두 그의 작품 중에서 표현되어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똑같은 것도 작품 중에서 매 개인이 표현해 낸 것은 색채에서 표정과 태도, 기법에 이르기까지 장악한 정도를 막론하고 모두 같지 않다. 매 개인의 인생경험이 같지 않고, 작자의 성격특징도 같지 않기 때문에 작품은 차이가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표현하려는 것은, 대천세계와 더욱 높은 경지의 생명에서부터 신 및 신의 세계에 대한 아름다움에 이르기까지를 펼쳐 보

렸다가 다시 떨어져 내려오며, 인류의 모든 문화 역시 이런 방향이었다. 과거 우주의 특성인 성(成) · 주(住) · 괴(壞) · 멸(滅), 인류의 일체가 모두 그 속에 있다. 그러므로 인류의 도덕이 나빠졌을 때면 무엇이든 모두 나빠져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데, 인류에게는, 바로 재난으로서, 일체가 모두 결속되고 일체가 또 새롭게 시작되며, 다시 정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 떨어져 내려오는 것이 반복된다.

중국 고대의 미술 그것은 계통적인 연구와 전문적인 학습이 없었기 때문에, 인체와 물체에 대한 투시관계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장악하지 못했다. 청나라 말기 이후 중국 미술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서방미술의 기본기 기초가 있게 되어 작품은 표면외형상에서 정확해졌으며, 일부 이런 작품이 나왔다. 그러나 근대에 이른 후, 특히 최근 20여 년에 중국도 현대의식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작품도 갈수록 형편없게 되었다. 관념은 사람의 의식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만약 사람의 정념(正念)이 주도적 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사람의 표면의식의 감수에 완전히 의거하여 진념(眞念)의 인식이 아닌, 진정한 자신의 청성(淸醒)한 사고가 없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이 없어진 것과 같다. 사람의 의식은 후천적으로 사람의 표피에서 형성된 것이며, 표현상 단지 사물에 대한 하의식(下意識)의 반응일 뿐이다.

의식은 불안정하여 수시로 변하고, 외부조건의 변화와 사회 형식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완전히 이러한 것들에 의거하는 것은 주념(主念)이 없는 것이며, 더욱이 체계가 없고, 규범이 없으며, 정념이 없고, 진정한 자기(自己)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의식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소위 현대예술·현대미술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이 바로 서방의 인상파와 추상파의 작품들이었다. 당신들이 냉정하게 그런 것들을 보면, 틀림없이 사람의 진념이 없이 사람의 표면관념에 따라 만들어낸 것과 같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규범적이지 못하며 규칙적이지 못하고 연속적이지 못한바,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에게 주는 미적인 감수가 없으며, 사람의 표면의식에 따라 나온 것이다. 그 당시 그들이 만들어 낸 그런 작품들을 보면, 그 무슨 코가 비뚤어진 것, 얼굴이 반쪽인 것, 한쪽 발이 뒤에 달린 것이 있는데, 시작부터 그런 것들은 바로 주념(主念)과 정념을 포기하고 만들어낸 것으로서, 후천적인 사람의 관념이 사람의 사지(肢體)를 사주하여 만들어낸 산물이다. 사람이 主意識(주이스)를 포기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표면 사람의 관념이 작용을 발휘하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의 출현은 거의 전 인류의 최정상이자 가장

명 중의 기타 조소 작품도 있었는데, 모두 매우 성숙되고 완미(完美)한 작품이었다. 이러한 고대 문명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서양예술은 매우 빨리 성숙으로 나아갔다. 왜냐하면 이전의 것이 있어서 배우고,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성숙됨이 매우 빨랐다. 르네상스시기 이후가 되어 다빈치와 그러한 예술가들의 출현도, 사실은 신(神)이 의도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이끌고 예술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며, 사람에게 어떻게 작품을 완성하는가를 알려주게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때 그들의 작품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 그러나 근대의 현대 예술 역시 일부 다른 유형의 신이 배치한 것인데, 바로 오늘날 정법을 좌우한 구 세력(舊勢力) 무리이다. 무엇 때문에 반 고흐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무엇 때문에 피카소라는 사람이 나왔는가? 이런 사람들 역시 그것들이 배치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바르지 못한 면(負面)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며, 목적은 바로 인류도덕이 미끄러져 내려갈 때 인류문화 중의 일체 역시 모두 동시에 폐괴(敗壞)되어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바로 인류의 예술을 난잡하게 만들려고 온 것이며, 바로 인류예술을 폐괴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완전히 인류의 문화를 훼손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다. 그들이 당초에 소위 현대파(現代派)라는 기초

느낄 가치가 있으며, 진정한 인류의 가장 정통적이고 가장 완미한 예술이다. 만약 전쟁을 치른다면, 루브르궁과 베르사유궁전 등에 보존한 예술품은 모두 없어지게 되며, 파리거리의 그런 예술도 없어지고 만다. 신이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했으며,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장래에 그래도 사람 자신의 예술을 되찾아오는 데 참조가 있도록 하려는 것인바, 대법제자들도 이런 정통예술의 기본(功底)에 의해서 되돌아 걸어올 수 있는 것이다.

서양예술은 과거 몇 차례의 문명 중에서, 사람은 모두 예술의 방식으로 새롭게 성숙되어 전 한 시기(一期) 문명의 길을 걸어 지나왔다. 그러나 전 한 시기 문명이 훼손된 후에는 기본기(基本功)가 미숙한 시기가 나타났다. 여러분들은 서방의 미술작품 중에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르네상스 이전의 작품과 르네상스시기의 작품, 르네상스시기 이후의 작품과 근대의 것, 이런 과정이다. 르네상스 이전은 총체적으로 보면, 작품의 예술수준은 매우 성숙되지 못했다. 구도·구조·비례·색채 등 여러분들 모두 보았듯이 매우 성숙되지 못했다고 느낀다. 회화와 조소를 막론하고 모두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서양에서 출토된 문물 가운데서 일부 전 한 시기 문명의 것들을 발굴해 냈는바, 일부 신상(神像)이 있고, 또한 전 한 시기 고대 그리스문

완미(完美)한 서방의 예술을 훼손시켜 버렸으며, 근대에는 중국에 영향을 주었다.

이것은 아직 현대예술의 초기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념은, 사회 전체 도덕이 갈수록 패괴(敗壞)되면, 관념 그것은 거기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 간다. 애초의 그러한 인상파·추상파의 것들은 정확한 투시관계·명암의 과도(過渡)와 구조의 정확성을 전혀 상관하지 않았고, 갈수록 소위 개인의 감수를 추구하였으며, 착오적으로 이런 무이성적(無理性的)인 방종을 자아인성(自我人性)의 해방으로 여겼다. 이것은 진정으로 본성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며, 자아진아(自我眞我)가 없는 후천적 의식의 방종이다. 색채를 강렬하게 칠하며, 완전히 청성(清醒)한 이념이 없는 관념을 방종케 한 그런 감수이다. 그러나 관념은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그것은 사람의 진정한 사상이 아니다. 그것은 불규칙적이고 규범적이지 못하며,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칠해낸 것도 역시 이러하며, 보면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 후기에 이르러 사람의 도덕관념이 갈수록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감에 따라 그것은 더욱 저하된 의식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이런 저하된 의식은 곧 사람의 관념뿐만이 아니었다. 사람의 주념(主念)·진아(眞我)가 사람표면을 지배하는 것을 포기할

때면, 그런 외래의 생물이 곧 틈을 타서 들어온다. 여기에까지 이르면 이미 외래의식이 인체의 대뇌를 조종하는 것으로, 색채가 더욱 침울하고, 더욱 음침(陰暗)해지며, 빛 역시 음산하고 흐릿하며, 완전히 인성(人性)이 퇴폐(頹廢)한 심태(心態)의 표현이 나타난다. 더 미끄러져 내려가면 사회의 명(名)·이(利)의 부추김을 더하여 완전한 자아 포기를 추구하는데, 이때는 후천적 관념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자아가 없는 껍질(軀殼)이 외래의식에 의해 100퍼센트 통제되는데, 이런 외래의식은 또 다수가 저승의 생물이며, 귀혼(鬼魂)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이것 역시 인류의 도덕이 나빠질 때의 천상변화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음성생물(陰性生物)에 의해 통제될 때, 그려낸 것을 보면 표현한 것이 바로 저승과 저승의 물체다. 많은 그림들이 귀신의 세계를 표현하였으며, 흐릿하고 캄캄하며 우중충한데, 그려낸 소위 인물들은 모두 혼과 같다. 저승의 땅, 저승의 하늘, 이러한 감각을 사람은 무엇 때문에 좋다고 느끼는가? 이것은 사람의 정념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음암(陰暗)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인류도덕의 큰 패괴(敗壞)가 아닌가? 이는 아직 단지 사람이 사람보다 더 낮은 그 한 층의 공간으로 걸어 나간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도덕이 계속해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예술은 한창 인류의 마성(魔性)을 그대로 펼쳐내고 있고, 예술은 이미 신성한 예술에 대한 모독으로 걸어 나갔으며, 완전히 마성 발설(魔性發洩)의 공구로 되어, 표현한 것은 요(妖)·마(魔)·귀(鬼)·괴(怪)이다. 예술가 자신도 ‘이는 모두 쓰레기이지만 소위 예술의 조류 중에서는 오히려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인정한다. 쓰레기가 어떻게 가장 좋은 것이 되겠는가? 사람의 관념이 반대로 되었기 때문에 쓰레기가 가장 좋다고 인식한다.

이것이 사람의 미술사(美術史)로, 나는 방금 대체적인 과정을 말했다. 나는 다시 서양예술을 말해 보겠다. 여러분 알고 있는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엇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투항하게 했는가? 프랑스 사람들은 싸울 능력이 없는가? 이 민족도 한때 나폴레옹·루이 14세 같은 영웅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 민족 역시 휘황한 역사가 있지 않았는가? 사실 인류의 전쟁은 신이 통제하는 것이며,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서, 사람이 뭘 나타내려고 해도 안 된다. 프랑스는 직접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속으로 투입되지 않았는데, 신의 목적은 이번 인류문명 중에서 겨우 남은 프랑스의 그런 예술품을 보존하려는 것인바, 그것 또한 인류가 이번 문명 중에서 가장 휘황하고 인류가 가장 긍지를